

BOK 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김민식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
Tel. 02-759-4217
minsik@bok.or.kr

김도완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과장
Tel. 02-759-4334
kim.dowan@bok.or.kr

박동훈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조사역
Tel. 02-759-4226
pdh@bok.or.kr

이진기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재정팀 조사역
Tel. 02-759-4238
suop456@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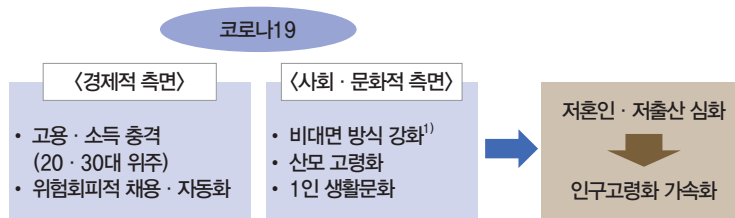
2020년 12월 30일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혼인·출산 관련 주요 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소득 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투자 등의 경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층의 결혼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는 혼인·출산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일시적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집안 생활(stay-home)' 확대에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 여건과 출산율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성장과 재정부문의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의 여건 변화



주: 1) '집안 생활(stay-home)' 확대에 따른 양육환경 개선 등은 출산율 하락을 일부 완화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고의 작성과 관련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배병호 거시모형부장, 이홍직 거시재정팀장께 감사드립니다.



I.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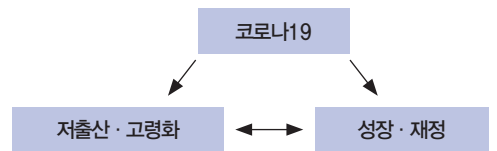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4분기 현재 0.84명으로 하락하였다. 통상 4/4분기에는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2020년 연간으로는 0.85명²⁾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출산율 하락세가 예견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공식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실제 출산율 추이는 통계청(16년 추계)의 저위(비관) 시나리오를 하회하였고, 2019년부터는 통계청(19 추계)의 중위(기본)와 저위 수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출산율 하락세가 예상보다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³⁾

더욱이 최근의 출산율 하락 양상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면 코로나19의 감염 공포가 확산된 시점⁴⁾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2021년 초부터 그 영향이 가시화될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에다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충격이 부정적으로 가해진다면, 저출산·고령화가 한층 가속화되어 거시경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성장률 손실, 재정지출의 급증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혼인·출산 등 젊은층의 행태변화를 통해서도 성장과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대응 여력이 축소되고 미래세대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면 저출산·고령화가 다시 심화되는 악순환도 발생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코로나19가 성장·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출산율 하락세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이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추가적인 출산율 하락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증장기 성장·재정 관련 연구에서 전제하였던 저출산·고령화

〈표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시나리오

	'16	'17	'18	'19	'20	'21	'22
실제	1.17	1.05	0.98	0.92	0.86 ¹⁾	-	-
'16 추계							
• 저위	1.16	1.14	1.13	1.11	1.10	1.10	1.09
• 고위	-	-	-	1.03	1.06	1.09	1.12
'19 추계							
• 중위	-	-	-	0.94	0.90	0.86	0.90
• 저위	-	-	-	0.87	0.81	0.78	0.72

주: 1) 2020년 1/4~3/4분기 평균
자료: 통계청

1)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15~49세) 출산율의 총합이다.
2) 2020년 1/4~3/4분기 평균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며, 통상 4/4분기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하회하여 0.83~0.84명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 합계출산율 분기별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분기 평균	연간 평균
• 2016~19년	1.14	1.04	1.02	0.93	1.07	1.03
• 2020년	0.90	0.84	0.84	-	0.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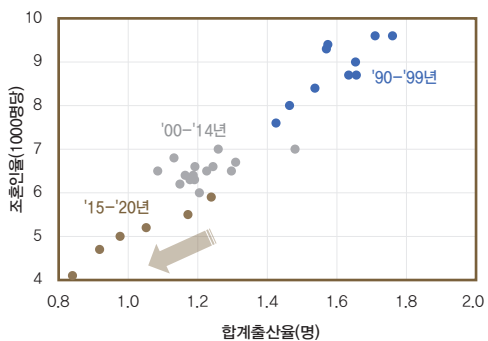
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2명 내외에서 등락하였으나 2016년부터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은 5년마다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있는데, 2016년 정주기후 이 후의 이 같은 출산율 급락을 반영하여 2019년 특별추계를 실시하였다.

4)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020년 2월 중순까지 30명 이하로 관리되었으나 2월말 이후 집단 감염이 시작되면서 감염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속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현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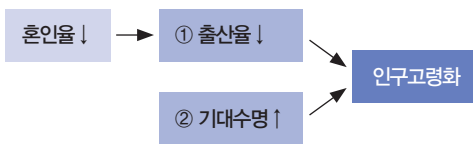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최근 더욱 빨라진 저혼인·저출산 추세<그림 2>와 코로나19의 인구동학적 영향을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 1990년 이후 혼인·출산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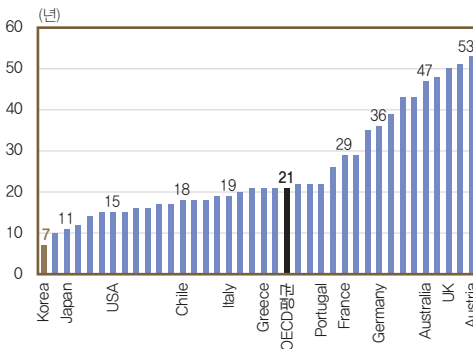
주: 1) '20년은 1/4~3/4분기 평균
자료: 통계청

<그림 3> 인구고령화 요인



앞서 서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구고령화가 추세적으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평균(17.9%)보다는 낮으나⁶⁾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⁷⁾<그림 4>.

<그림 4> 고령→초고령사회 소요 기간



자료: OECD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1. 인구고령화 현황

인구고령화⁵⁾는 총인구 중 고령자의 인구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출산율과 사망률이 장기간 저하된 결과로 나타난다<그림 3>. 사망률 하락(기대수명 연장)은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생산가능인구 축소)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상당한 거시경제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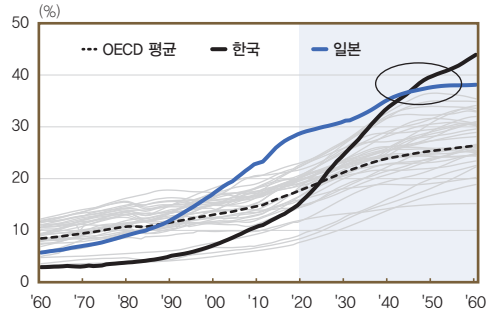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1960년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40년대에는 일본을 앞서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전망이다<그림 5>.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은 향후 정책대응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5) 고령화 정도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각각 7%, 14%,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OECD 37개국 중 29위이다(1위 일본(28.9%), 2위 이탈리아(23.1%), 6위 독일(21.8%), 26위 미국(16.9%)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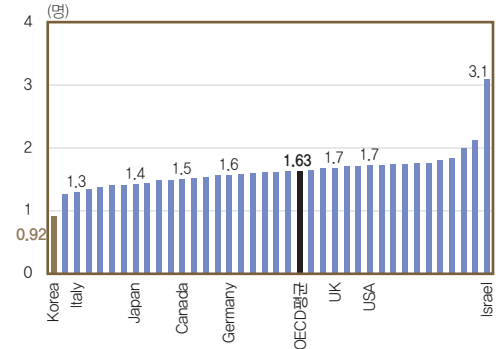
7)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 사회에서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최단 기간(7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고령인구 비중 추이¹⁾



주: 1) 음영은 전망(OECD)
 자료: OECD, 우리나라는 통계청('19년 추계) 기준

〈그림 7〉 OECD 합계출산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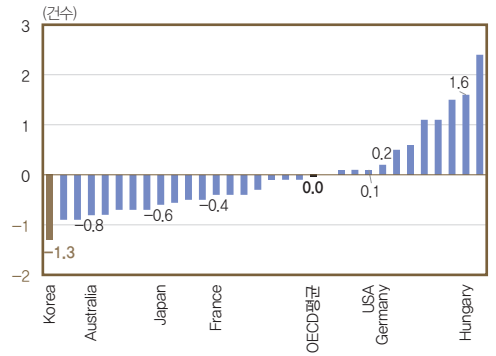


주: 1) 2018년 기준(우리나라는 2019년)
 자료: OECD

① 고령화 요인: 초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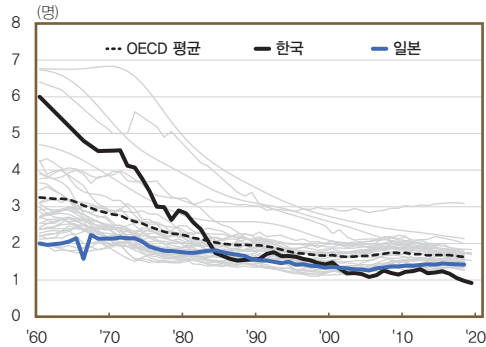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급속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림 6〉 및 〈그림 7〉).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92명, 2019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며 스페인(1.26명), 이탈리아(1.29명), 그리스(1.35명), 일본(1.42명)이 우리나라의 뒤를 잇고 있다. OECD 비회원국 중에서는 러시아(1.57명), 중국(1.69명), 브라질(1.73명)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 8〉 2010~17년 기간중 혼인율¹⁾ 하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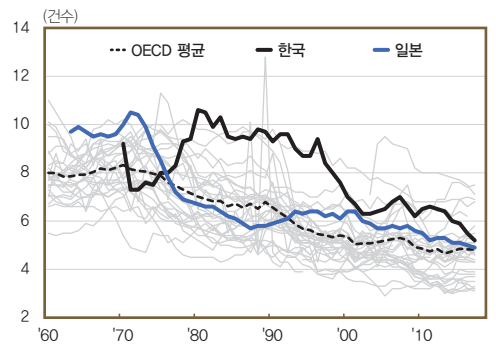
주: 1) 조혼인율(1,000명당 혼인건수) 기준이며 2017년이 OECD 최신 자료임
 자료: OECD

〈그림 6〉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OECD

〈그림 9〉 OECD 혼인율¹⁾ 추이



주: 1) 조혼인율(1,000명당 혼인건수) 기준이며 2017년이 OECD 최신 자료임
 자료: OECD

출산율의 선행지표인 혼인율을 살펴보면, 하락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그림 8〉. 조혼인율(粗婚姻率)⁸⁾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5.2건으로 OECD 평균(4.8건)을 상회하였으나 2020년 3/4분기 현재 3.7건으로 급락하였다(2018년 5.0 → 2019년 4.7)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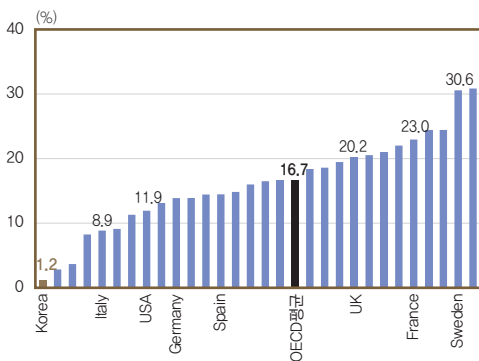
혼인율 수준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⁹⁾ 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럽 국가들은 법적 혼인율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혼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혼인율 수준은 OECD 내에서 하위권일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오래된 자료이지만 혼인관계 중 사실혼 비중이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그림 10). 또한 혼외출산 비중도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② 고령화 요인: 기대수명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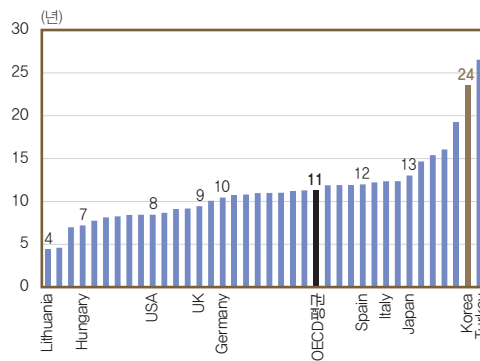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기대수명¹⁰⁾은 소득중대, 의료 기술 발달, 지속적인 보건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급속히 연장되어 왔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연 평균 0.42년¹¹⁾ 늘어

〈그림 10〉 혼인관계 중 사실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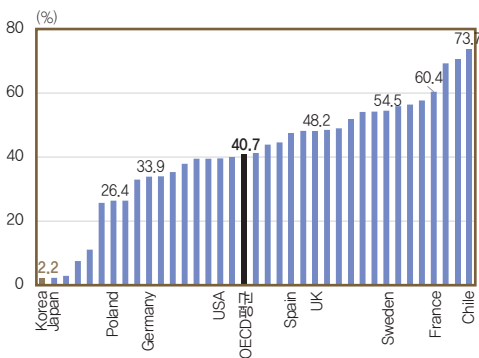
자료: OECD(2011년 기준, 한국은 2005년)

〈그림 12〉 1970~2020년¹⁾ 기대수명 증가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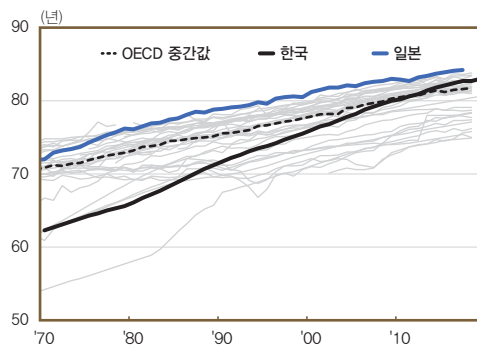
주: 1) 1960년대 후반~2010년대 후반중 기대수명 증가년수 기준, 자료: UN 인구보고서(2019년)

〈그림 11〉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산 비중



자료: OECD(2018년 기준)

〈그림 13〉 기대수명 추이



자료: OECD

8) 혼인율 지표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이 주로 사용되며 합계출산율에 1년 정도 선행한다(사차상관계수: 0.964).

9) 이탈리아 3.2건, 포르투갈 3.3건, 프랑스 3.5건, 스페인 3.7건, 네덜란드 3.8건, 영국 4.4건 등(2017년)

10) 기대수명이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11) 2000년 이후로는 기대수명이 연 평균 0.37년 연장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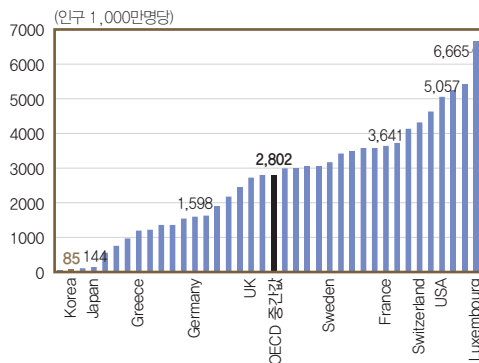
왔으며,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인 80.6세를 상회한다(〈그림 12〉 및 〈그림 13〉).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혼인·출산율, 기대수명 등 모든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진 것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의 여건을 점검하기에 앞서 먼저 코로나19가 일반적인 재난과는 다른 인구학적인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의 인구학적 특성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인구피해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률·사망률이 낮고 보건 의료 체계도 원활히 작동되고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 원인 중 하나인 기대수명 측면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4〉).

〈그림 14〉 코로나19 발병률¹⁾



주: 1) 인구 1,000명당 발병률(2020.12.15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은 기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변화를 가속화하여 상당 기간 인구동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재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베이비붐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염병, 전쟁 등은 전연령층 혹은 젊은층에 주로 피해를 주면서 사망률 상승 및 출산율 하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재난이 종식된 이후에는 출산율이 급반동(baby boom)함에 따라 인구손실을 만회한 경우가 많았다(Nobles *et al.*, 2015; Jowett, 1991). 이러한 베이비붐 현상은 재난과정에서 자녀를 잃은 데 따른 출산유인과 희망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따른 출산선호 등에 주로 기인한다(Aassve *et al.*, 2020).

반면 코로나19의 경우 사회 전반의 경제적·심리적 불안을 크게 고조시키면서 혼인·출산 결정을 취소 혹은 연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감염피해는 젊은층보다는 주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 종식 이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출산율의 급반동 현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코로나19의 장기화·토착화¹²⁾에 대한 우려로 희망적인 사회분위기의 전환 및 이에 따른 혼인·출산심리 개선이 기대만큼 충분히 이루어질지 낙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출산에 대한 일시적 연기가 영구적인 포기로 이어질수록 출산율의 반동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의 혼인·출산률 추이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강한 편이라면 코로나

12) WHO(Ryan 사무처장, 2020.5.13일), 英과학자자문그룹(2020.8.22일), 美콜롬비아대(Shaman·Galanti 교수, Science誌, 2020.10월호) 등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의 풍토병(endemic)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19의 인구학적 영향은 단기 교란에 그칠 수 있겠으나 후술할 인구구조 변화 여건을 살펴 보면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표 2〉 국내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¹⁾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전체	44,364 (100.0)	600 (100.0)	1.4
80대~	2,057 (4.6)	309 (51.5)	15.0
70대	3,464 (7.8)	185 (30.8)	5.3
60대	6,808 (15.3)	74 (12.3)	1.1
50대	8,100 (18.3)	25 (4.2)	0.3
40대	6,252 (14.1)	5 (0.8)	0.1
30대	5,686 (12.8)	2 (0.3)	0.0
20대~	11,997 (27.0)	0 (0.0)	0.0

주: 1) 2020년 12.15일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3.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출산율 및 혼인율은 아래와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박경훈, 2017; 이상호·이상현, 2010). 우선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① 고용·소득 여건, ② 주거여건, ③ 교육여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④ 직장·가정의 양육환경(일·가정 양립), ⑤ 젊은층의 결혼관·자녀관, 그리고 물리적인 ⑥ 혼인·출산연령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는 이 중 주로 고용·소득여건과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측면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안 생활(stay-home)’이 길어지고 부부의 공동육아 확대로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출산율 하락을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전염병 확산에 따른 물리적 활동 축소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관련 주요 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① 경제적 측면

금년 3월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취업자수¹³⁾가 급감하는 등 고용불안이 크게 증대되었다. 2020년 3~9월중 혼인건수¹⁴⁾는 전년동기 대비 1.6만건(1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음식점내 감염 공포로 인한 결혼식 취소·연기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고용 및 소득여건 불안정이 혼인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⁵⁾

또한 임신건수도 일부 통계¹⁶⁾가 시사하는 것처럼 크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의 고용·소득충격이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점이 이 같은 혼인·임신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3).

13) 취업자수 증감(전년동기대비, 만명): 2020.1/4분기 +28.8 → 2/4 -40.7 → 3/4 -31.4

14) 3~9월중 혼인건수(만건): 2019년 13.4 → 2020년 11.8(전년동기대비 -12.0%)

15) 특히 2020년 3~4월중 혼인건수 감소(전년동기대비 -21.5%)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음식점에서의 감염 공포에 따른 결혼식 취소·연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6) 임신부가 병원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가 2020년 4~8월중 13.7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하였다(자료: 국민건강보험).

〈표 3〉 3~11월중 취업자수 증감¹⁾

	2018	2019	2020
전체	7.7	31.2	-33.9
10대	-4.4	-0.4	-4.1
20~30대	-3.7	0.5	-36.8
40~50대	-8.8	-6.4	-28.3
60대~	24.6	37.6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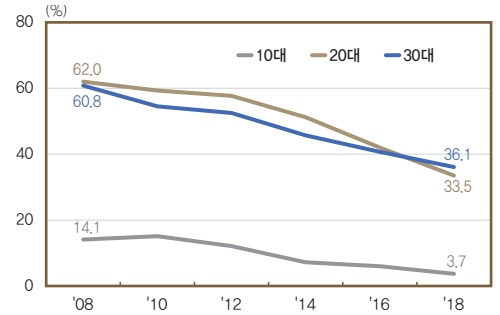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증감
 자료: 통계청

한편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고용 경직성에 따른 리스크를 경험함에 따라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투자 확대 등 기존의 노동수요 대체 추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김혜진, 2020).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채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일수록 안정된 노동수입원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②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 온라인 소통 등 비대면 생활환경이 점차 확산되면서 특히 결혼과 관련한 젊은층의 행태변화가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젊은층은 거센 경쟁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긍정적인 결혼관이 축소되고 있었다(그림 15). 인구와 자원의 집중화로 대도시·수도권 내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대도시·수도권 밖에서는 ‘대도시·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함에 따라 미래(출산)를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생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우림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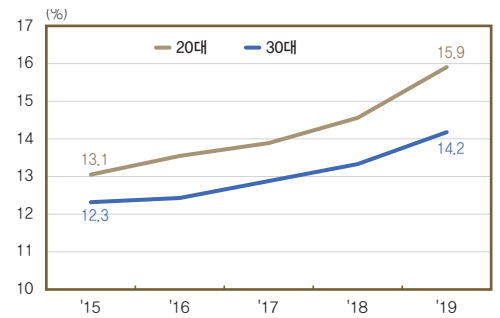
〈그림 15〉 긍정적 결혼관¹⁾ 응답 비중



주: 1) "반드시 해야 한다" + "하면 좋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더불어 현실적인 1인 생활여건¹⁷⁾도 편리하게 바뀌면서 1인 가구 비중이 크게 늘어나 결혼에 대한 당위성도 점차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16). 더불어 비대면 생활방식은 20~30대 남녀간 초기 관계형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최슬기, 2020).

〈그림 16〉 20·30대 1인 가구 비중¹⁾



주: 1) 해당 연령 인구에 1인 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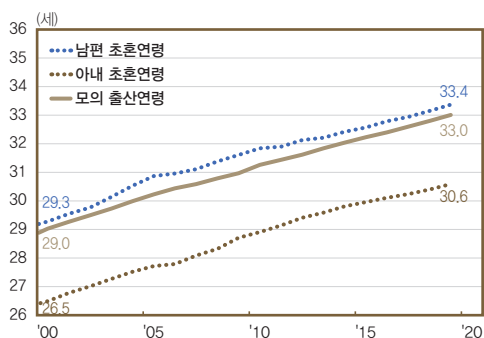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격리현상은 결혼에는 부정적 요소이지만, 기혼자의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부가 집안내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 모두가

17) 혼밥·혼술문화, 1인 맞춤형 제품 증가, 배달앱·편의점 등 1인 생활 편의시설 정착, 파트타임 일자리로 장기간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층 증가 등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코로나19는 출산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Voicu · Bădoi,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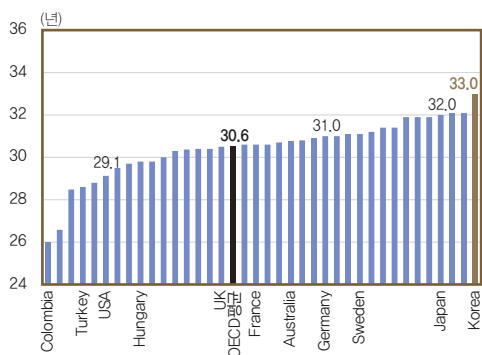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는 상당 기간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연령의 고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부부의 초혼연령 및 산모의 출산연령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그림 17).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0세로 OECD 회원국(평균 30.6세) 중에서 가장 높다(그림 18).

〈그림 17〉 초혼 및 출산 평균연령



자료: 통계청

〈그림 18〉 OECD 평균 출산연령¹⁾



주: 1) '17년 혹은 최신년도 기준(한국은 '19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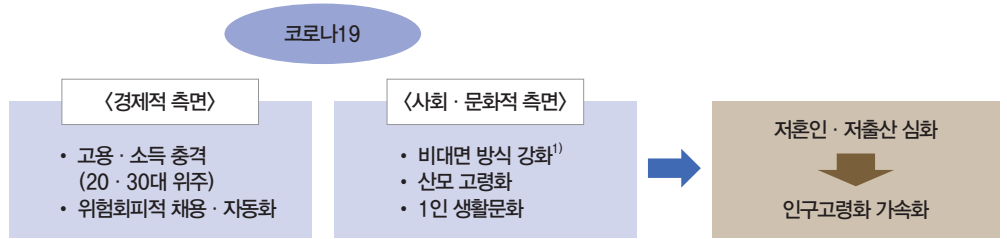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출산 적령기를 놓칠 경우 자녀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산에 대한 부담이 있는 30대 중반 이상의 기혼여성¹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둘째 혹은 셋째 자녀계획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조영태, 2020).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30대 여성의 비율이 2012년에는 32.3%였으나 2018년에는 10.8%로 크게 축소되었다. 자녀관에 대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면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앞서 점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혼인·출산 관련 제반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짐에 따라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부터 현실화되어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기인한 혼인율 감소는 1년 이상 시차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성공적인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인 혼인·출산유예가 해소되면서 출산율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출산율 하락폭 및 반등폭은 코로나19 지속기간과

18) 자녀수별 산모의 출산연령: 첫째아 32.2세, 둘째아 33.8세, 셋째아 이상 35.4세

〈그림 1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의 여건 변화



주: 1) '집안 생활(stay-home)' 확대에 따른 양육환경 개선 등은 출산을 하락을 일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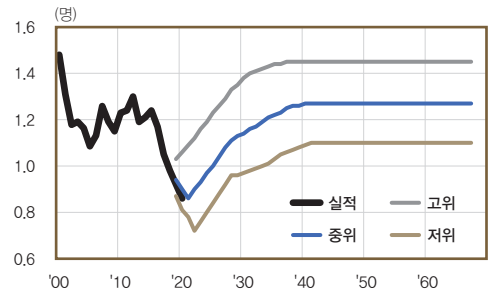
이에 따른 경기위축 및 향후 개선 정도 등에 주
로 달려 있을 것이다.¹⁹⁾

본고에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19년)
의 중위(기본) 및 저위(비관) 시나리오의 결과²⁰⁾
를 주로 비교하면서 향후 고령화 속도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
구구조 변화는 수년 후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중장기적으로 점차 가시화되는 것으로,
한 번 형성된 기조적 흐름은 그 방향을 되돌리
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중위 합계출산율 시나리오는 2021
년 0.86명으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하여
2040년부터 1.27명 수준이 유지되고, 저위
의 경우는 2022년 0.72명 저점 이후 회복하
여 2041년부터 1.10명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
로 설정되어 있다(〈표 1〉 및 〈그림 20〉).²¹⁾ 따
라서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 여건과 출산율 추
세가 크게 변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합계출산

율 추이는 2019년 예상했던 기존의 중위보다
는 저위 시나리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고, 보
다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저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20〉 기존 합계출산율 시나리오¹⁾



주: 1) 2020년 실적의 경우 1/4~3/4분기 평균
자료: 통계청('19년 장래인구추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율은 OECD 37
개국 중 29위 수준인데, 세계 1위인 일본을 앞
서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되었던 2045년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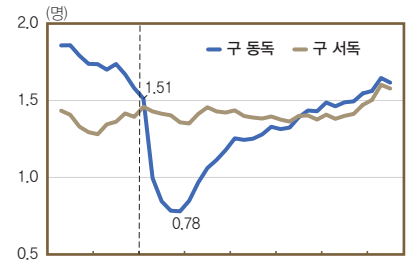
19) 최승기(2020)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 회복 정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정도, 경제 위기 영향, 공동체 신뢰수준(사회전반의 안정감 등),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에 따른 일·가정 양립 정도 등에 달려 있다. 참고로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실업, 주거 비용 급증 등으로 동독 젊은이의 평균 초혼연령이 통일전 24세에서 통일후 28세로 상승하였다. 합계출산율은 통일 시점인 1990년 1.51명을 기록한 후 1994년 0.78명까지 급락하였다.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4년 1.55명을 기록하여 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①중위 시나리오(출산율: 중위/기대수명: 중위/국제순이동: 중위)와 ②저위 시나리오(출산율: 저위/기대수명: 중위/국제순이동: 중위)를 비교하였다.

21) 통계청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정기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22) OECD의 국가별 고령인구 비율 전망치와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비교하였다.

독일의 합계출산율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19년 장래인구추계 중위시나리오)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4>.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는데 코로나19의 혼인·출산 충격도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²³⁾

<표 4> 중장기 고령인구 비율 시나리오 (%)

통계청 (19년)	일본 추월	2020	2030	2043 ¹⁾	2050	2060
일본(OECD)	-	28.9	31.2	36.4	37.7	38.1

주: 1) 2043년 한국은 36.40%, 일본은 36.35%
자료: 통계청, OECD

또한 총인구²⁴⁾의 감소 시기도 기존의 중위시나리오 예측(2029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만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20년 1~9월중 사망자수(22.6만명)가 출생아수(21.2만명)를 상회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감소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표 5> 중장기 총인구 시나리오¹⁾ (만명)

통계청 (19년)	고점	2021	2023	2025	2030	2040	2050	2067
중위		5,182	5,187	5,191	5,193	5,086	4,774	3,929
저위			(0.1)	(0.2)	(0.2)	(-1.9)	(-7.9)	(-24.2)
중위		5,176	5,170	5,163	5,141	4,994	4,651	3,731
저위			(-0.1)	(-0.2)	(-0.7)	(-3.5)	(-10.1)	(-27.9)

주: 1) () 내는 2021년 대비 증감률(%)
2) 5,194.2만명
자료: 통계청('19년 추계)

2019년부터 감소세가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는 최근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 충격이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38년부터 3,000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며 점차 감소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표 6>. 기존의 저위시나리오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는 2059년부터 2,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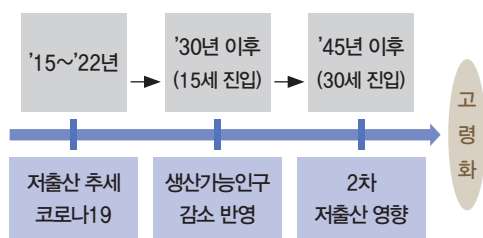
<표 6> 중장기 생산가능인구 시나리오¹⁾ (만명)

	2021	2,035	2,038	2,040	2,050	2,060	2,067
중위	3,713	3,145	2,966	2,865	2,449	2,058	1,784
		(-15.3)	(-20.1)	(-22.8)	(-34.1)	(-44.6)	(-52.0)
저위	3,713	3,142	2,950	2,838	2,377	1,950	1,656
		(-15.4)	(-20.5)	(-23.6)	(-36.0)	(-47.5)	(-55.4)

주: 1) () 내는 2021년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19년 추계)

이처럼 저출산·고령화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면서 향후 성장과 재정부문의 위험요인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21> 주요 시점별 영향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23) 총인구중 20~30대 인구 비중(2020년 7.1일 기준)이 우리나라는 27.4%인 반면 일본은 21.3%이다.

24) 장래인구추계에서의 총인구는 국내 거주 한국인과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포괄하며 매년 7.1일 시점에서의 인구(연앙인구)를 의미한다.

이후에는 2차 저출산을 초래하게 된다<그림 21>. 고령인구 규모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늘어남에 따라 연금·의료비 등 의무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노동투입 감소로 인해 성장 및 재정수입은 제약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우림, 조영태, 차영재, 장대익,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3권 2호), 2020년 10월 pp. 129-153
- 김혜진,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No.2020-13, 2020년 9.7일
- 박경훈,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조사통계월보 제71권 제6호, 2017년 6월, pp. 16-70
- 이상호, 이상현,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금융경제연구 2010년 12월
- 조영태, YTN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 2020년 8.27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2016년 12월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2067년”, 2019년 3월
- 최슬기, “코로나19 사태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부 「저출산 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 2020년 10.5일
- Aassve, A., Cavalli N., Mencarini L., Plach S., Livi Bacci M., “The COVID-19 pandemic and human fertility”, Science 369, July 2020, pp. 370-371
- Jowett, J., “The Demographic Responses to Famine: The Case of China 1958-61”, GeoJournal 23.2, 1991, pp. 135-146
- Jenna Nobles J., Frankenberg E., Thomas D., “The Effects of Mortality on Fertility: Population Dynamics After a Natural Disaster”, Demography. 2015 February 52(1), pp. 15-38
- Shaman J., and Galanti M., “Will SARS-CoV-2 become endemic?”, Science 370, October 2020, pp. 527-529
- Voicu M., Bădoi D., “Fertility and the COVID-19 crisis: do gender roles really matter?”, European Societies, 2020년, DOI: 10.1080/14616696.2020.1822537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2020-17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64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